



연극 大韓國人 安重根

‘애국혼’ 광주에서 만난다

안중근 역에 최수중 ... 광주일보 애독자에 8일부터 티켓 배포

1909년 10월 26일 오전 중국 하얼빈 역에 총성이 울렸다. 안중근이 겨누는 총구는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향했고, 히로부미는 그의 총탄 앞

에 쓰러졌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중근은 7차례 재판 끝에 사형을 언도 받고 이듬해 3월 26일 오전 10시 동양평화 만세와 대한 독립만세를 삼창하며 생을 마감한다. 그의 나이 30세 7개월, 한창 푸를 청년의 나이였다.

올해는 안중근(1879~1910) 의사의 거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안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가 속속 기획되고 있는 가운데 오페라·연극·뮤지컬 등 문화예술계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일보사는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와 함께 안의사의 삶을 돌아보는 연극 ‘대한민국 안중근’ 초청 공연을 갖는다. 23~24일(오후 3시~7시) 광주 5·18기념문화관 민주홀.

‘대한민국 안중근’은 민족 영웅의 모습 뿐 아니라 ‘동양평화론’을 주창하며 인류 평화를 기원했던 대표적 사상가로서의 안의사 모습을 담은 연극으로

이달 23~24일 5·18기념문화관

가사를 모의하는 1909년 10월 20일부터 생을 마감하는 1910년 10월 26일까지 행적을 그리고 있다.

이 연극은 서울·광주·대전 공연을 마치고 일본 도쿄와 중국 하얼빈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작사 ‘JS 씨어터’는 ‘조선왕조 5백년’ 등 인기 드라마와 88서울올림픽 개·폐막식을 연출한 표재순씨가 만든 단체다.

‘역사와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JS씨어터’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 속 대표적 인물을 선정, 작품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삶을 극화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제작,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공연했다.

연극은 모두 2막으로 구성돼 있다. 1막에서는 안의사가 우덕순 등 동지 11명과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 맹세하는 모습과 거사 장면 등이 생생히 묘사된다.

2막은 일경에 붙잡힌 안의사에 대한 취조 장면과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는 모습,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모습, 그리고 사형 집행 장면 등이 담겼다.

이번 연극 제작에는 쟁쟁한 인물들이 참여했다. 이종섭의 일대기를 그린 ‘길 떠나는 가족’ 등을 쓴 김의경씨가 대본을 썼고, 연출은 표재순씨가 맡았다. 타이틀롤 안중근 역으로는 ‘대조영’ ‘해신’ ‘태조 왕건’ 등에서 열연한 탤런트 최수중이 출연한다. 또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 역으로 정혜선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기정수·원근희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

‘대한민국 안중근’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작됐으며 라마다 프라자 광주호텔은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등 후원했다.

티켓은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배포(1인당 2매)한다.

문의 062-220-0525.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인도 문화 체험하세요 문화도시홍보관 30일까지

‘인도문화 체험하러 오세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광주시 동구 금남로)이 문화교류 사업 일환으로 ‘아시아 속 인도문화 나누기’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펼쳐지는 이 행사는 인도의 전통 무용, 노래 공연과 인도민속예술품 전시, 인도영화 상영 등으로 꾸며졌다.

인도 전통극 카타칼리 공연과 전통 무용 바라타나티얌 관람, 타코르의 시 노래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인도 전통차 찌이를 직접 만들어 맛도 보는 시음회와 전통문양을 몸에 그리는 헤나 체험, 요가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오랜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는 세밀화 작품과 예술품, 조각상 등이 전시되며, 인도를 대표하는 영화 ‘신상’ ‘춤추는 무뽀’ ‘비운의 러브’도 감상할 수 있다.

인도문화예술품은 행사기간 홍보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공연과 체험 행사는 토·일요일 오후 3~4시, 영화는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상영된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www.oc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alsdkalsk@korea.kr)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230-0114, 018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0년전 멘델스존을 그리며...

스클피아 오케스트라 8일 광주문예회관
전남대 교수음악회 10~11일 전대 연주홀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1809~1847)은 낭만주의 시대 대표적 음악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이탈리아’ 등 교향곡과 차이코프스키·베토벤의 곡과 함께 흔히 ‘3대 바이올린협주곡’으로 꼽히는 바이올린협주곡, ‘결혼 행진곡’으로 유명한 ‘한여름밤의 꿈’, 피아노 소품집 ‘무언가’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멘델스존 곡만으로 레퍼토리를 짠 음악회가 잇따라 열린다.

지난 2000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키피아 오케스트라는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를 멘델스존 탄생 기념연주회로 꾸렸다.

박문경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 레퍼토리는 교향

곡 4번 ‘이탈리아’, ‘핑갈의 동굴’ 서곡이며 이형석(전남대 교수)씨가 ‘바이올린협주곡 e단조 작품 64’를 협연한다.

전남대 음악학과(학과장 신수경) 교수들은 두 개의 연주회를 준비했다. 피아노연주소는 10일(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무언가’ 전곡 연주회를 갖는다.

‘가사가 없는 노래’라는 뜻의 ‘무언가’는 멘델스존이 6곡씩 8류음을 작곡, 모두 48곡으로 구성돼 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봄노래’를 비롯, ‘베네치아 곤돌라 노래’ 등이 대표적이다. 김선주·정형준·문인영·박수진·김선아·황소원·이근영·문현미씨가 출연한다.

11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교수음악회는 성악·기악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피아노 트리오 d단조 작품 49’ ‘현악 8중주곡 e장조 작품 20’ 성악곡 ‘나는 나의 사랑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등이 연주되며 출연진은 윤소희·신수경·정영기·강숙자·이형석·조규철·신정문씨 등이다.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자로 엮보는 현대인의 욕망 김정선 전 서울인사아트센터

세상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그림자를 갖는다. 그림자는 드러나지 않는 자아의 어둡고 음습한 것을 대변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의 욕망을 그림자를 통해 조명하고 있는 김정선씨가 오는 10~16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SHADOW BLUE’를 주제로 그림자로 엮보는 세상 풍경과 명품 핸드백, 가방을 통해 브랜드에 얽매는 현대인들의 이중적인 소비심리를 비판한다. 물 위에 비친 풍경은 실제와 그림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표현됐고, 두려움이 들 정도의 푸른 빛깔은 화면을 압도한다.

김씨는 조선대 대학원(순수미술)을 졸업한 뒤 남부현대미술제, 그리미회 초대전 등에 참가했으며, ‘토만사’ 크로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쉐도우’

‘예술영재발굴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박인석)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오는 8월17~21일 전남 총남예술고에서 열리는 ‘2009예술영재발굴캠프’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20명) 등 3개 분야로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받으며 캠프 참가자들은 국내 저명 예술가로부터 무료로 교육받는다. 문의02-746-9586.

/김대성기자 bigkim@